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2021 SPRING

vol.140

햇살 한 줌의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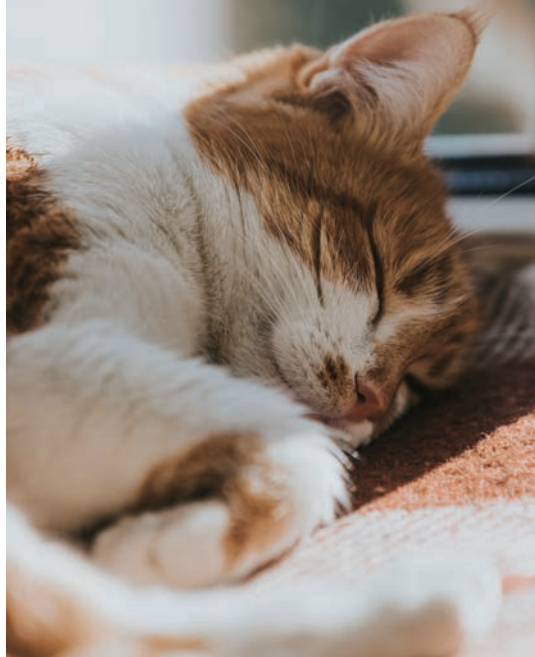
햇살이 고운 계절입니다. 봄은 햇살을 따라 우리 곁에 가만히, 아주 가까이 스며듭니다. 온기를 품은 봄 햇살이 온 데 지에 넉넉하게 퍼지면 우리는 조금 나른해져서 자꾸만 고개를 꾸벅거리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에 고마워하며 잠깐의 여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여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쏟아지는 봄 햇살 맞으러 문을 활짝 열고 길을 나서요. 별을 찌기 좋은 봄이니까요.



당신의 봄, 꽃이 피어나네

공공 얼어붙은 땅을 뚫고 고개를 내민 노란 복수초를 시작으로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과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앞을 다뒤편 피어납니다.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마음이 정돈되고 복잡한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마스크에 구애받지 않고 활짝 핀 봄꽃들이 조곤조곤 속삭이네요. 모두 괜찮아질 거라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당신도 나처럼 곧 활짝 웃을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봄이 왔다고.





Vol.140
2021 SPRING

CONTENTS

2	찰나의 순간	햇살 한 줄의 여유 당신의 봄, 꽃이 피어나네
SPECIAL THEME		
8	SPECIAL THEME 01	안녕, 귀여운 반려동물! 내 고양이를 부탁해
10	SPECIAL THEME 02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는가
14	SPECIAL THEME 03	펫코노미 시대, 펫맘족이 사는 법
18	SPECIAL THEME 04	반려견과 함께 찾으면 좋은 특별한 공간

사람과 건강

22	건강 읽기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주의하라!
24	인하포커스	행동발달장애진센터
30	영화와 인생	영화 <플립>과 <나의 소녀시대>
34	계절밥상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토마토 요리
36	콧노래 여행	터키 이스파르타, 장미에 취해
42	친절한 인하사	친절한 인하사를 소개합니다

인하, 사람

44	인하가 만난 사람	교육수련실 사람들
48	인하라운지	안전한 여행, 인하대병원 코로나검사센터와 함께
50	인하이슈	2020년 의료질평가 전 영역 1등급 획득하다
52	톡톡 약물상담	혈액순환개선제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6	진료안내표	

인하대병원보 2021년 봄호(통권 제140호)
 발행일 2021년 3월 1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SPECIAL THEME



안녕, 귀여운 반려동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해를 거듭할수록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과거 애완동물이라고 불리던 존재는 이제 '짝이 되는 동무'라는 의미의 '반려(伴侶)' 동물이 되어 우리 곁에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나 형제-자매처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의 개와 고양이는 우리에게 무엇이기에도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관계만 존재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한편에서는 좋지 않은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잔인하게 학대받고 무참히 버려지는 동물들의 뉴스를 빈번하게 접하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행복한 공존에 대한 실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봄호 <ON>에서는 너무나 귀여운 가족, 반려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글 편집부



내 고양이를 부탁해

반려동물은 없지만 관련 이야기를 하려면 만나절은 쉬지 않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말하려면 '고양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었고, 털의 색깔이나 생김새도 기억나지 않는 그 고양이는 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길 고양이였다. 녀석은 자주 시골에 머물던 어린 시절의 나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친구였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친구인 줄 알았다.

당시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은 지금의 '반려'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1980년대, 시골 할아버지집 고양이의 생활 터전은 주로 마당이었고, 따로 끼니를 챙겨주는 일도 드문 시절이었다. 간혹 챙기긴 했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먹다 남긴 식사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녀석이 처음부터 좋았다. 굳이 찾자면 귀여운 생김새에 한눈에 반했을 수도 있고, '야옹' 하고 우는 소리나 일명 '냥짹'이라고 불리는 고양이의 발바닥이 이유였을 것이다. 어찌면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1984년 도입한 '인간과 동물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끌린다'는 가설대로 본능적으로 끌렸을 수도 있다.

녀석 역시 다른 가족보다 내게 더 살갑게 굴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꼭 붙어 지내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녀석을 집 안에 들이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한 순간도 떨어지기 싫었던 나는 밤에 잘 때도 곁에 두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와 우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새벽녘의 일이다. 그날따라 녀석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잠에서 깬 나는 한사코 말렸다. 나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우리 둘 사이에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과는 녀석의 승리였다. 눈빛이 돌변한 녀석은 갑자기 평소답지 않은 사나운 소리를 내며 앞발을 들어 내 왼쪽 볼을 할퀴고 달아났다.

그날의 상처는 나의 왼쪽 볼에 한 줄 상처로 깊게 박혀 트라우마와 커다란 교훈으로 남아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선을 넘은 내 잘못이지 싶다.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잘 몰랐다. 녀석은 배가 고팠거나 이성 고양이의 구애 소리를 들었거나 또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을 것이다. 오직 내 욕심에 따라 녀석의 욕구와 행동을 막은 것이므로 응당 벌을 받은 것이다. 이후 내게 고양이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로 자리 잡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차렸다.

각각 잠깐 곁에 머물다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간 아기 진돗개들도 있다. '봄'과 '뫼'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데려온 그 아이들은 어쩐지 조금씩 아팠다. 동생과 나는 손바닥만 한 녀석들을 집 근처 동물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일주일 뒤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다. 그 이별이 너무나 슬퍼서 며칠 내리 울었던 기억이 있다. 수개월 뒤 시골집에서 다시 조우했지만 그새 몰라보게 자란 녀석들과 우리는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간극을 느꼈었다.

산책할 때 마주하는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이 요동친다. '-아직까지 고양이는 좀 무섭다- 나도 반려견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서로를 쓰다듬고 살을 부비며 온기를 나누고 싶다. 영감을 주고받고 교감하며 서로의 생(生)의 의미이고 위로가 되고 싶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만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나는 녀석을 외롭게 할 것이 분명하고, 유별난 성격상 집착하고 심각하게 얽매일 것도 확실하다. 무엇보다 녀석을 먼저 보내고 남은 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 주변에도 오래전 반려동물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지인이 여럿이다. 동물이 생을 마감하면 무지개다리를 건넌다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또렷하게 남아 있다. 수해 전 읽은 이 글은 지금도 마음에 거센 비를 뿌린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지개다리로 불리는 아치형 다리가 있다. 삶을 마감한 개는 푸른 초원이 펼쳐진 그곳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다. 늙은 개는 젊어지고 아픈 개는 건강을 되찾는다.

하지만 천국에 입주한 녀석들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소중한 사람을 이승에 남겨둔 채 이곳에 먼저 와 버렸다는 것.

그렇게 그리움만 쌓여가던 어느 날, 한 마리 개가 동작을 멈추고 반대편을 응시한다. 코를 벌렁거리며 익숙한 냄새를 알아차린다. 녀석은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무리에서 벗어나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한다. 날아갈 듯 발걸음이 빨라진다. 개가 향하는 곳에 누군가 서 있다. 바로 당신이다.

마침내 당신과 개는 재회한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당신의 얼굴을 핥는다.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개의 눈을 들여다본다. 오롯이 당신만을 신뢰하는 눈동자. 어느새 당신과 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당신이 개를 얼싸안고 무지개다리를 건너며 말한다.

"오랫동안 네 눈동자를 보지 못했지만 난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꾸나."

『언어의 온도』(말글터)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에게 의미가 된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쁨과 축복의 일상에 동참하고 싶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기에 대신 부탁하고 싶다. 오늘도 반려동물과 마음을 나누고 깊이 교감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1,500만 반려인에게 전하고 싶다. 오래오래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길들여 견고한 신뢰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그렇게 멍멍이·야옹이들과 해피엔딩을 맞이하기를!

PET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는가

인간과 반려동물은 오래전부터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왔다. 반려동물과 인간은 어떻게 소울메이트(Soulmate)가 되었을까.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 묻고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맹세리 교수가 답했다.

인간은 왜 동물을 사랑하는가

“ 최근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더 주목받는 것은 과거 대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구조로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사회 변화와도 관련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또는 사람 사이에서 느꼈던 정서적 교감을 반려동물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지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왜 인간은 동물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신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에 대한 동물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오가는 갈등이나 판단 없이, 애정과 관심으로만 이어집니다. 무조건적이고 현신적인 반려동물의 사랑을 받는 경험은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의 카우치 아래에는 ‘조피’라는 반려견이 항상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개, 고양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긴 시간을 거치면서 개와 고양이는 눈빛만 보아도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인간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관계를 맺을 때 본능적으로 어린 아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돌볼 때는 모성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랜 시간을 거쳐 이미 인간의 몸속에는 인간과 익숙한 동물에 대한 사랑의 본능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



반려동물이 선사하는 이로움

“반려동물의 존재가 인간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건강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낮아지거나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과 교감을 경험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주로 출산과 분만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돕는 호르몬인데, 아이와 엄마의 유대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처럼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나 긴장 시에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본다면,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 강화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환자들에게 반려동물의 존재는 정신과 환자라는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에서 벗어나 무한한 신뢰를 주고, 믿고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주기적으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밥을 먹이고 씻기는 활동은 무가치함을 느끼는 우울증 환자에게 자신이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고 무기력감이나 사회적 불안감이 적어지도록 격려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과 개, 고양이의 관계는 매우 오래되었고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이들과의 공존은 인간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생각되니까요. 잔인한 동물 학대의 상황은 대개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에도 언급되는 것처럼,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유년기에 동물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타인을 해코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또한 인간보다 약하고 작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폭력성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나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약한 존재를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통제하려는 욕구,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미래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어느 날 부모로 보이는 어른들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길을 나서요. 이후 영문 모르는 아이는 어른들 손에 이끌려 길가에 버려집니다. 아이를 두고 떠나가는 차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바로 강아지였지요. 유기되는 반려동물에 대해 가족을 버릴 거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평생 지능이 3세 정도인 아이를 15년 이상 돌본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아이를 책임지고 돌볼 준비가 되었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반려동물의 존재를 인간의 대체품으로 여기거나 그로 인해 현실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줄어들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관계는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의존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를 방해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



2021년 볼호 <ON>에서는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맹세리 교수님과
잠실베스트동물병원 하지영 수의사님이 만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카밍 시그널(Calming Signals)

언어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정서적 안정을 누린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언어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반려동물의 몸짓언어를 관찰하면 그들의 기분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강아지

- **혀를 낼름거리다**: 스트레스 해소 행동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시그널.
- **기지개를 켜다**: 기지개를 켜면서 눈에 생기가 돌면 '함께 놀자'는 시그널.
- **한 발을 들고 쳐다보다**: 무언가를 원하거나 먹고 싶을 때.
- **코를 핥는다**: 불안함이나 긴장감을 느낄 때.
- **고개를 돌린다**: 적대감이 없음을 알릴 때, 뻔히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할 때.



고양이

- **그루밍을 한다**: 평소보다 잦은 과도한 그루밍은 스트레스의 징후일 수 있다.
- **하품을 한다**: 불안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정시키려는 행동.
- **배를 보이고 뒹굴거리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적의가 없음을 알리는 행동이다. 애정 표현일 수도 있다.
- **꼬리가 위로 향한다**: 반갑다고 인사하는 행동. 꼬리를 세운 채 부르르 떠는 건 기쁨의 표현.
- **발톱을 정리한다**: 스크레처나 가구 등에 발톱을 긁는 것은 영역 표시처럼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한 행동일 수 있다. 발톱을 긁는 대상이 스크레처가 아닌 가구라면 최근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지 모른다.



펫코노미 시대, 펫팸족이 사는 법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도 옛날과 다르다. 펫코노미 시대, 반려동물의 화식부터 미용, 여행까지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를 살펴보자.



성장한 반려동물 산업과 달라진 문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14%가량 성장한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27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학회에서는 미래 10대 전망 산업으로 꼽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반려견(83.9%)을 키우는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반려묘(32.8%), 어류·열대어(2.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출원 품목도 점점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새로 생겨난 신조어는 반려동물의 인기를 잘 보여준다. 바로 '펫코노미(Pet+Economy)'와 '펫팸족(Pet+Family)'이다. 펫코노미는 '애완동물'을 의미하는 영어 'Pet'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를 조합한 신조어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일컫는다. 펫팸족은 '애완동물'을 의미하는 영어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가족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펫코노미와 펫팸족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잠실베스트동물병원 하지영 수의사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데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전보다 많이 늘어난 듯하다.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할 가족의 일원이자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한다. 또 하지영 수의사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산책, 여행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사람은 서로 위안을 주고 지켜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또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사람 위주의 해석과 일방적 관계가 아닌 반려동물의 언어와 마음을 읽어주고 반려동물을 이해하며, 내가 보호해야 할 아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책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주목할 키워드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 사람과의 행복한 공존이다. 하지영 수의사는 “그동안 사람 위주의 편의성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 몇 가지 예로 과거 건사로 위주의 식이었다면, 이제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화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 영양제의 다양화와 개발, 건강한 제품의 증가, 사료 성분에 신중한 소비자들의 증가 등도 화두다. 펫드라이룸, 고양이 자동 화장실 등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편의성이 향상된 디지털 제품도 여럿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함께 살기 탁월한 집, 펫테리어

펫테리어는 'Pet'과 'Interior'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공간을 뜻한다. 오랜 시간 집에 머무는 반려동물을 위해 집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보호자와 오래 떨어져 있을 때 반려동물은 분리불안을 겪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가구를 제작하고 컬러를 칠하는 등 반려동물 맞춤 인테리어를 시행한다. 반려동물에게 맞춰 설계한 집은 반려동물의 상실감과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 실제로 반려견 소파, 안전도어, 미끄럼방지 시트, 펫타워 등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펫테리어 용품이 여럿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사람도 있고, 수의사가 상주하는 반려동물 공동 주택 등도 생겨나고 있다.

반려동물과 추억을 만드는 여행, 펫캠프

호캠프는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생겨난 여행 트렌드다. 호캠프는 다시 세분화되어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먹캠프, 호텔에서 OTT 서비스로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넷캠프(넷플릭스+호캠프) 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펫캠프가 빠질 수 없다. 펫캠프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일찍부터 존재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나라 호텔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캠프'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뷔페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7월부터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한 끼 식사, 프리미엄 펫푸드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된 펫푸드 시장에는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연어, 상어연골, 오리고기 등으로 만든 프리미엄 수제 간식과 유기농 사료가 등장하고,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 등을 꼼꼼하게 따지며 먹이기 시작한 것도 변화다. 따라서 반려동물 식품 업계에서는 항생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원재료 등으로 만든 펫푸드를 선보이는 추세다. 관세청 집계는 고급 펫푸드 수요가 늘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펫푸드 수입액은 2억 7,073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1.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펫 가전 전성시대

가전업계에서는 펫 가전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펫 전용 모델에는 맞춤형 필터가 들어갈 뿐 아니라 흡입력 등 성능을 기존 제품보다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탈취·극세필터를 적용해 반려동물 냄새와 털 제거 기능을 갖춘 펫케어 전용 공기청정기를 출시했고, 무선청소기 제트에는 '펫 브러시'를 도입해 털 제거 성능을 높였다. 직화오븐 제품에는 반려동물에게 수제 간식을 먹이려는 펫팸족을 위해 '펫 간식 모드'를 추가했다. LG전자는 무선청소기 'LG코드제로A9S 펫싱큐'를 출시했는데, 펫 전용 흡입구로 패브릭 소재 소파와 카펫에 붙은 반려동물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했다. 펫 전용 모델 공기청정기는 전체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중 최근까지 판매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IT를 접목한 반려동물 용품이나 건강관리 제품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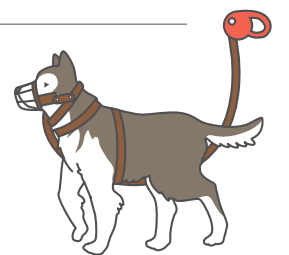
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양이가 네모난 본체 안에 들어가 배변을 보면 자동으로 배설물을 처리해주는 고양이 자동 화장실도 등장했다. 매일 목욕이 힘든 반려동물의 털에 붙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털어내는 '펫 에어샤워 & 드라이룸'도 있다.

펫보험, 가입하셨나요?

반려동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펫보험이 등장했다. 펫보험은 의료비, 배상책임, 사망위로금, 장례지원비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600건이던 펫보험 가입 건수는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했고, 지난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망 혹은 후유장해 시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천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우리가 새겨야 할 펫티켓

-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꼭 착용한다.
- 외출 시 배변봉투를 휴대하고, 배변을 하면 바로 치운다.
- 물병을 챙기고, 가벼운 간식을 준비한다.
- 다른 이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반려견과 함께 찾으면 좋은 특별한 공간

늘 바깥 세상이 궁금한 반려견의 일상에서 산책을 빼놓을 수 없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홀로 보내는 반려견과 함께 울퉁불퉁한 길을 나서자. 반려견과 찾으면 좋은 공간을 소개한다.

조금 멀리 떠나도 괜찮아

어디든 함께 가고,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일주일을 기다려 만나는 주말이나 달콤한 휴가라면 조금 멀리 떠나도 좋다.

덕평자연휴게소 안에 위치한 달려라코코

달려라코코는 2013년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 안에 문을 열었다. 부지 약 8,000㎡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 친환경 반려견 테마파크다. 언덕 지형을 살린 놀이터 '힐링파크', 실내 200m 긴 통로로 구성된 포토존 공간 '인스타웨이', 반려견에 맞게 별도로 건축한 전문호텔 '코코하우스',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 아웃도어 용품점,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해외 동물행동학자들의 자문으로 구성된 '힐링파크'의 운동 효과는 널리 알려져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운동하는 장소로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인스타웨이'는 반려견과 동반 입장해 영상과 3D를 통해 반려견에 대해 알아보고, 포토존 공간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다.

위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287-76 덕평자연휴게소 내
문의 070-7730-9979, www.runkoko.com



울산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

애니언(Animal+ian)파크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을 의미하는 합성어다. 2020년 9월 24일 문을 연 애니언파크 약 2,000㎡의 실내공간에는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 및 휴게시설을 마련해줬다. 또한 약 1만3,000㎡의 야외부지에는 반려견의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을 갖췄다. 이곳의 특징은 반려견 동반고객이나 일반고객 모두에게 반려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반려견 예절교육(Ulsan Canine Good Citizen)은 반려견을 양육하지 않는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예절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교육받는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다양한 공간에 출입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편 울산교육청과 연계해 실시하는 청소년 동물사랑교육은 콘텐츠전시관, 영상교육실, 체험교육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동물매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6로 108
문의 052-286-2200, www.anianpark.com



인천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인천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 두 곳을 만나보자.

인천 최초로 조성한 인천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인천대공원은 사계절 언제나 좋은 공원이지만 특히 봄이면 공원을 가득 메우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 2018년 7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이 공간은 전체 면적 3823㎡ 규모로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가 분리돼 있으며 도그워크, 회전놀이, 도그폴, 터널통과 등 다양한 놀이시설로 꾸며놓았다. 또 대형 파라솔, 야외탁자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들을 동반한 이용자도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하다. 출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가능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월~11월 기준)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시설점검을 위해 쉰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문의 032-440-5838



다양한 시설을 갖춘 송도도그파크

2019년 4월 송도국제도시 안에 개장한 송도도그파크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에 약 5500㎡ 규모로 조성한 반려견 실외 놀이터다. 이곳은 대형견, 중·소형견,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입장할 수 있도록 총 3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간 안에는 입구 상징 조형물, 관리동 2곳,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 피비우스 슬로프, 강아지터널, 음수대, 그늘막, 데크, 세계 건종여행 전시가벽, 타일벽화, 물놀이 시설 등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췄다. 송도도그파크도 인천대공원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코로나19 탓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지만 평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시설점검과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우천 시, 미세먼지 경보 시, 폭한기, 혹서기 등에도 이용할 수 없다.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50

문의 032-456-2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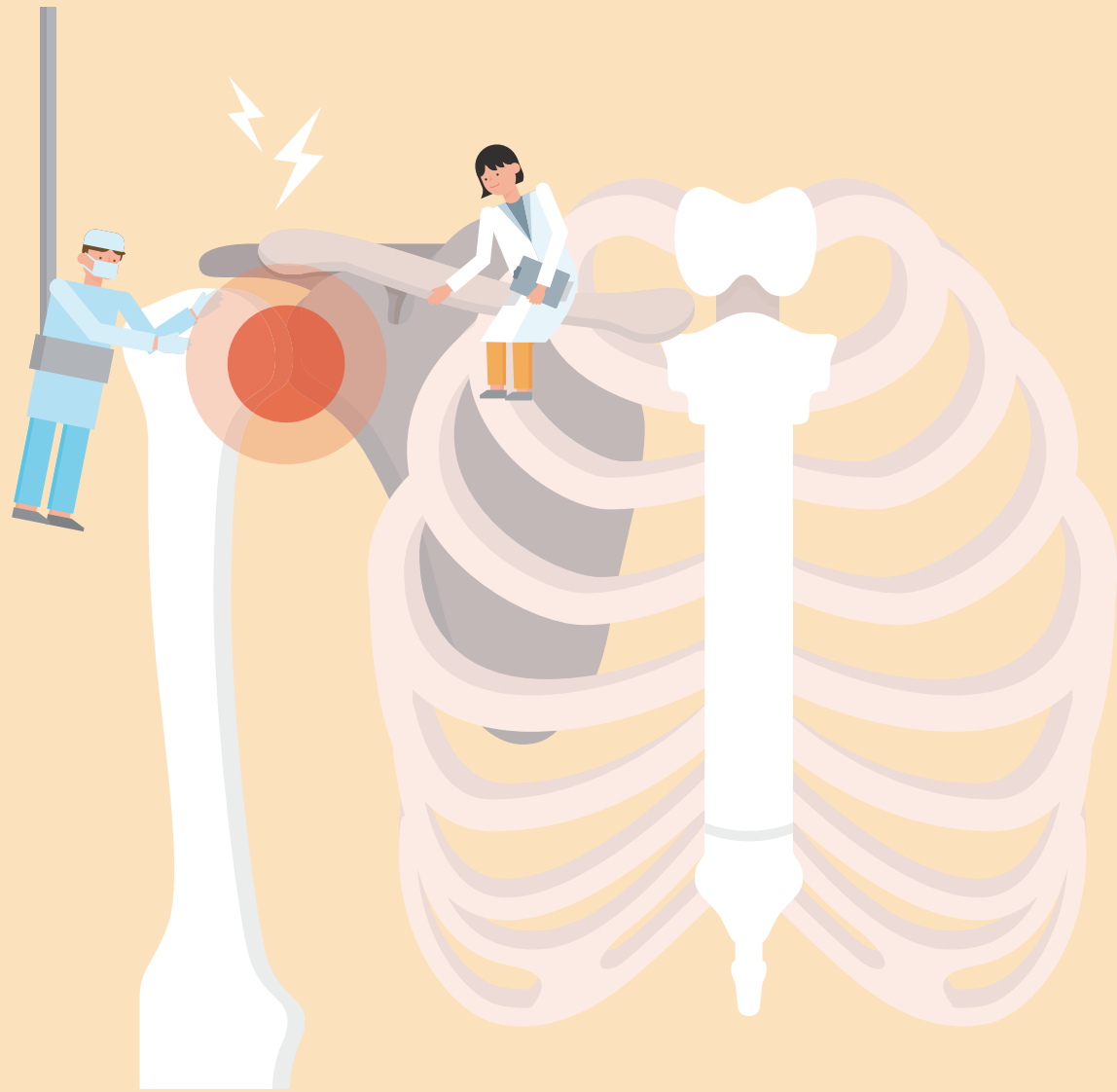


건강한 삶을 꾸리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제안합니다.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주의하라!

그간 코로나19, 2.5단계 거리두기, 추운 날씨 등으로 움츠렸지만 날씨가 풀리고 백신접종 소식이 본격화하면서 몸과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무리한 움직임이나 활동은 신체 곳곳에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중 대표 질환이 '회전근개파열'이다. 회전근개파열의 원인부터 치료까지 알아보자.



어깨 통증 1순위로 꼽는 회전근개파열

겨우내 적은 활동량을 유지하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운동 등으로 무리하게 어깨를 움직이면 심한 어깨 통증이 나타나는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어깨 수술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깨 수술의 가장 큰 요인이 '회전근개파열'이다. 회전근개파열은 잘 낫지 않는다는 어깨 통증 1순위로 꼽히는 질병이다.

무릎 관절과 달리 어깨 관절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며, 동시에 신체에서 가장 넓은 운동 범위가 요구되는 관절이다. 어깨 관절에서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말한다. 이 근육들은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파열되어 팔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회전근개파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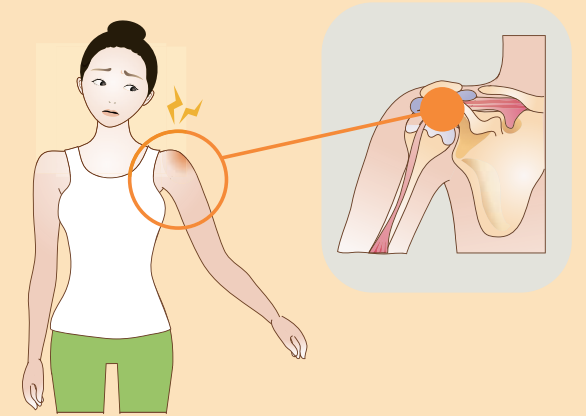
만성 통증 양상으로 나타나는 증상

회전근개파열은 흔히 40대 이후 연령층에서 회전근개의 혈액순환 장애,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지나친 어깨 사용, 과격한 스포츠 활동 등으로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회전근개파열은 보통 만성 통증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깨 통증과 근력 약화, 결림, 삐걱거리는 혹은 두둑거리는 소리 등이 동반되는데, 흔히 팔을 위로 올릴 때와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극심한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회전근개파열을 진료해온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상 교수는 "회전근개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서 저절로 치유되는 질환이 아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히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상 교수는 회전근개에 염증이 발생하는 회전근개염과 파열은 구분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상 교수는 "염증은 주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며 경과를 지켜보지만, 파열은 파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전층 파열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병변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보통 관절내시경을 통해 회전근개 위쪽에 튀어나온 건봉을 절제하는 '건봉절제술'과 힘줄을 봉합하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전근개파열의 치료에는 어깨질환 전문의의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예방은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평소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회전근개파열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평소 생활할 때 어깨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가동범위 강화 스트레칭을 하면 만성 어깨 통증에 효과적이다. 튜빙 밴드를 이용해 어깨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이도 저도 쉽지 않다면 습관적으로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회전근개파열 증상

- 어깨 통증
- 어깨 결림
- 삐걱거리는 혹은 두둑거리는 소리
- 근력 약화

발달장애인의 행동 문제를 치료·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인하대병원에는 사회 시설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있다. 경인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만나보자.



발달장애인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지원하는 센터

발달장애란 정신발육의 이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자폐증에 따른 언어 및 신체 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능력 장애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262만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2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시설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일수록 자해나 공격 등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행동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2013년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시작으로 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전국에 총 9개가 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다

인하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2019년 12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소했다. 경인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로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하고 자해, 공격 같은 도전적 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구성원은 총 7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센터장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맹세리 부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손지성 교수, 조성애 코디네이터, 김재우 특수교사, 김지은 언어치료사, 목소라 언어치료사 등이다. 이들은 센터 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정섭 센터장은 센터 치료대상 아동 치료 및 약물 처방, 보호자 상담 등을 맡는다. 맹세리 부센터장과 손지성 교수는 여기에 놀이치료를 추가로 시행한다. 조성애 코디네이터는 타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협진, 정신건강의학과 센터 연계, 센터치료 희망 보호자 평가(A-DOS, 발달평가, 언어평가 등) 및 상담을 담당한다.



김재우 특수교사는 행동중재 및 보호자 상담, 부모교육을 수행하고, 김지은 언어치료사와 목소라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 행동 중재 및 보호자 상담, 부모 교육을 도맡는다.

센터 내 프로그램은 행동치료, 언어치료,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이 있다. 행동치료에서는 일상생활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자해 및 타해의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 중재를 제공한다.

언어치료에서는 수용 및 표현언어의 어려움이 있고,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또래에 비해 발화가 제한적인 경우 PECS(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와 같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행동치료, 언어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대상자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가족과 논의,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행동치료사는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자해, 타해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지원, 학습 기술 향상 등을 목표로 응용행동분석 원리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한다. 언어치료사는 언어와 의

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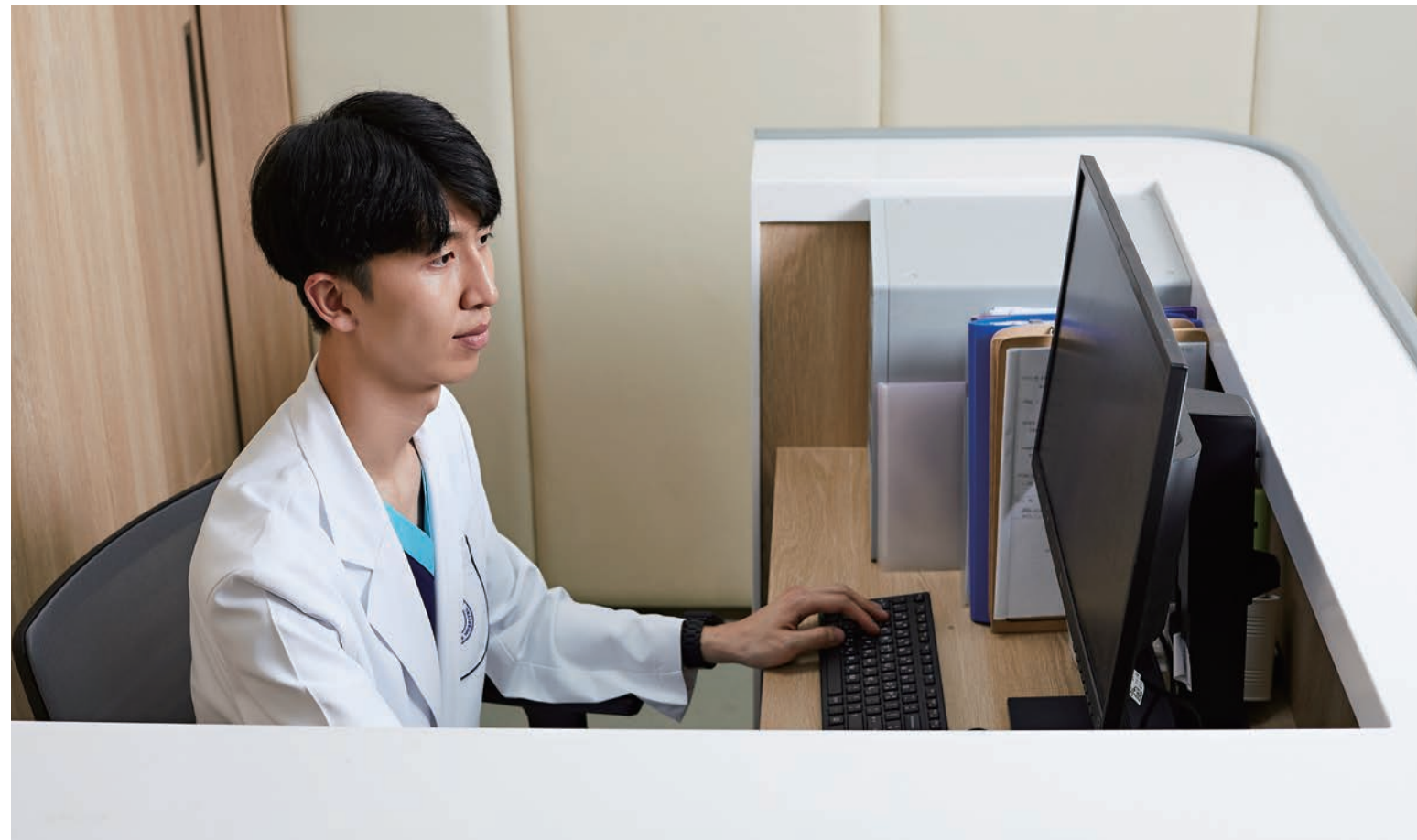
목표는 발달장애인 치료의 메카가 되는 것

인하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간 부단히 노력하며 성실히 달려온 결과 몇 가지 성과를 얻었다. 먼저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센터의 활동과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또 센터 내부적으로는 매주 ABA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의 행동치료 교육과 행동치료 조언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심층 증례 회의의 열어 심도 깊은 환자 치료를 진행한다. 개소 심포지엄과 1주년 심포지엄도 개최했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여럿 참가해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소 1주년을 맞아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은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인 ADOS-2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ADOS-2는 국제적으로 공고히 인정받는 자폐증에 대한 진단도구로, 보호자 요청이 점점 증가하면서 인하대병원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 보호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ADOS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봉귀영 특수교사, 유희정 교수를 초빙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자랑은 정기적으로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초학문적 접근을 시행하는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장을 위해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구상하고 제공한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긴밀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인하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눈여겨볼 점이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경인 지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다. 앞으로 인하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목표는 보건복지부 지정 경인 지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발달장애인 치료의 메카가 되는 것이다.



Mini Interview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정섭 센터장

모두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하고 싶다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정섭 센터장은 센터를 찾는 모든 이들이 만족하고 돌아가도록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이정섭 센터장을 만나 행동발달증진센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정섭 센터장은 인하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 환자를 만난 지 24년이 됐다. 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정신장애를 전문으로 진료한다. 환자를 대할 때 이정섭 센터장은 'Frist, do no harm'라는 말을 가슴에 새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전부터 의사들에게 내려오는 경구인데, 그리스 원어로는 'Primum non nocere'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의사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때 환자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피하라는 말이지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하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센터를 찾는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한 항목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환자의 만족입니다. 센터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 정보의 비밀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주세요.”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행동 문제를 동반한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행동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예산과 장소, 인력이 제한적이기에 센터를 찾는 모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원하는 치료를 충분히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정섭 센터장은 이 부분이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다.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상당 기간을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치료를 맡은 환자에게는 최선의 치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원하는 치료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인천 지역의 관련 기관, 여러 치료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섭 센터장은 앞으로 목표와 당부의 말을 전한다.

“인천 지역 교육 기관들과 발달장애인 치료센터와 연결을 진행해 센터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서로 의뢰하고 도와주는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하대병원이 발달장애인의 거점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찬란한 첫사랑의 기억 〈플립〉과 〈나의 소녀시대〉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첫사랑이 있다. 첫사랑은 팔순이 넘은 할머니의 마음에도 고이 간직되어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아이의 가슴을 태우기도 한다. 첫사랑의 모습은 다양하고 인생에 남긴 흔적도 사람마다 각각이다. 유일한 공통점은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가장 아쉬운 사랑은 이루어진 첫사랑일지 모른다. 따스한 봄을 맞아 풋풋한 첫사랑을 담은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온화한 감정이며, 부드러운 소리여
감동 어린 영혼의 선량함과 평온함이여
-이반 투르게네프, '첫사랑'-

모호하고 아름다우며 순수했던 첫사랑

황순원은 단편 「소나기」에 가을 소나기처럼 짧게 끝난 소년과 소녀 이야기를 그렸다. 개울가 징검다리에서 만난 수줍은 소년과 조금 더 적극적인 소녀는 그 또래 아이들처럼 친구와 이성을 넘나드는 애뜻한 감정을 키운다. 어느 날 세찬 소나기에 둘은 기울어져 가는 원두막으로 피한다. 아마 소녀는 어딘가 아팠던 모양이다. 소나기가 내린 날 이후 소년은 소녀를 기다리지만 다시 만나지 못한다. 들려온 것은 소

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다. 먼 훗날 소년은 이것을 첫사랑으로 기억 못할지도 모른다. 첫사랑은 아름답지만 모호하며, 모든 사람이 첫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피천득의 자전적 수필 「인연」은 M선생의 딸 아사코와의 세 번의 만남을 회고한다. 화자는 아사코가 다닌 춘천의 성심 여학원을 매개로 소녀 아사코, 대학생 아사코, 그리고 장교의 부인이 된 아사코를 담담하고 간결하게 그려낸다. 우리는 이 세 만남의 어렵풋한 감정과 아련한 그리움에 내 기억 인양 빠져든다. 단편 소설이라 해도 좋을 이 짧은 수필에서 화자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라고 독백한다.

어떤 사람에게 첫사랑은 인생 최대의 아픔이다.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은 열여섯 살 소년의 고통스러운 첫사랑을 다룬다. 성인의 문턱에 들어선 소년 블라디미르에게 관능적인 연상 여성 지나이다는 동경의 대상이자 수수께끼이다. 그가 지나이다에게 사랑에 빠진 날은 '열정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고통도 시작된 날'이다. 블라디미르의 첫사랑은 성적 관심의 분출이었으며 소유욕의 투쟁이었다. 지나이다의 숨겨진 정부는 블라디미르의 아버지였다. 블라디미르는 폭풍 같던 자신의 첫사랑을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아주 늙어 버렸다'는 문장으로 요약한다.

첫사랑 영화를 고르던 중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의 첫사랑은 꽤 늦은 나이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기쁜 우리 젊은 날〉이나 〈101번째 프로포즈〉에는 첫사랑에 빠지는 노총각의 순애보가 나온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서른을 넘긴 배우 안성기와 문성근이다. 대표적인 첫사랑 영화 〈건축학개론〉과 〈김종욱 찾기〉의 주인공들도 대학을 진학했거나 이미 혼인 적령기에 도달했다. 유교적 잔재의 유령과 남녀가 분리된 학교 생태계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청춘의 대부분을 입시 지옥에 빠져 첫사랑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지나간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첫사랑에는 계급투쟁과 독점적 성관념도 끼어든다. 먹물끼나 먹은 지인은 〈건축학개론〉은 강남과 강북을 나누던 계급의식과 전근대적 남성의 독점욕이 남아 있던 시대에 대한 〈응답하라 1988〉풍의 회고극이자 투르게네프의 잔혹극이라 단정 짓는다. 반페미적이고 반동적 영화라는 것이다. 이 말에 기가 죽어 선정 범위를 압축했다. 주인공이 혼인 적령기인 작품을 피하고, 정치적·사회적, 또는 경제적 갈등 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배제하고(아닌게 아니라 아무도 춘향전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을 첫사랑 영화라고 하지 않는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하는 관계도 제외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좋고, 순수해야 하며, 첫사랑을 통해 알을 깨고 나오듯 성숙해지면 더 좋다. 여기에 맞는 영화를 선정했다.

할리우드 감성 영화 장인이 만든 〈플립〉

〈플립〉은 2010년 로브 라이너가 만든 영화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개봉했다. 입소문 탄 영화가 그렇듯 작품성과 감동이 평범함을 넘어선다. 로브 라이너는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어퓨굿맨〉, 〈대통령의 연인〉 같은 모범적이고 수준 있는 감성 영화를 잘 만드는 할리우드의 장인이다. 제목 플립(flipped)은 '뒤집히다'는 뜻이지만 구어로 '완전히 빠진'이라는 의미다. 우리 표현



초등학교 2학년 줄리는 새로 이사 온 브라이스의 아름다운 눈에 빠진다. 브라이스는 가난한 집 아이인데다, 너무 적극적인 줄리가 싫다. 세월이 흘러 중학생이 되어도 브라이스는 여전히 줄리가 싫지만 줄리는 브라이스가 좋다.

'콩깍지가 씌었다'와 비슷한 어감이다. 초등학교 2학년 줄리는 이사 온 브라이스를 본 첫날 그에게 빠진다. 아름다운 눈 때문이다. 브라이스는 정원도 꾸미지 않는 가난한 집 아이인데다, 너무 적극적인 줄리가 싫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자라 중학생이 된다. 브라이스는 여전히 줄리가 싫고 줄리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줄리의 몸과 마음은 성숙해진다. 줄리는 여전히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브라이스 할아버지의 말처럼 어떤 사람은 전체가 부분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줄리는 브라이스의 눈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브라이스의 전체는 그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브라이스는 할아버지에게 '평범한 사람이 있고 반짝이는 사람이 있고 빛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일생에 한번 오색찬란한 사람을 만난다'는 말을 듣는다. 오색찬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돌이켜 보니 줄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브라이스의 '열정과 고통'은 이제 시작된다.

풍경화를 그리는 줄리의 아버지는 나무와 소와 해는 각각이지만 그것이 어우러지면 마법이 된다고 알려준다. 전체는 부분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줄리는 마을 어귀 플라타너스 나무 꼭대기에 올라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말의 뜻을 깨닫는다. 매일 이 나무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줄리의 즐거움이 된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 땅 주인이 집을 짓기 위해 플라타너스를 베어버린 것이다. 플라타너스를 못 베게 하려고 줄리가 나무 위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지역 신문에 실린다. 브라이스의 할아버지는 이웃의 당찬 소녀 줄리에게 관심을 갖는다. 할아버지는 이웃집 소녀 줄리의 정원 만들기를 도우면서 교감을 나눈다. 브라이스의 할아버지도 줄리 아버지와 같은 말을 들려준다. 어떤 사람은 전체가 부분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줄리는 자기가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이 넘치자 브라이스 집에 선물로 가져다준다. 브라이스의 집에서는 불결할 수 있으니 돌려주라 한다. 줄리를 만나기 싫은 브라이스는 몰래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것을 안 줄리 마음에 동요가 생긴다. 줄리는 브라이스의 눈은 아름답지만 그의 전체는 눈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줄리는 더 이상 브라이스에게 감정을 갖지 않으려 한다. 브라이스는 점점 줄리가 달라보인다. 그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플라타너스가 잘린 곳으로 브라이스와 산책을 나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범한 사람이 있고 반짝이는 사람이 있고 빛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오색찬란한 사람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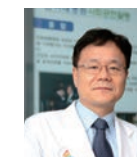
난다." 그날 밤 브라이스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는 줄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돌이켜 보니 그동안 줄리의 말과 행동은 예사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오색찬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브라이스의 '열정과 고통'은 시작된다. 소년과 소녀의 상황은 '뒤집힌다 (flipped)'.

대만 로맨스 영화는 늘 옳다. <나의 소녀시대>

<나의 소녀시대>는 대만 영화다. 대만에서 트렌디한 인기 TV 드라마를 만들던 여성 감독 천위산(Frankie Chen)이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다. 2007년 주걸륜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이후 대만의 청춘, 로맨틱 영화는 강세를 보인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타이페이 이야기>, <청설> 등 주옥같은 영화가 많아 젊은 영화 팬들에게 '대만 로맨스 영화는 늘 옳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나이든 관객 눈에는 닭살이 돋을 만한 내용이지만 의외로 재미있다. 대만이라는 나라의 북고적 분위기가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더 친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대만도 정치가 미개하고 군사 문화가 있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힌다). 게다가 평범한 대만 배우들이 옛날 우리 모습과 닮았다. 70년대 진추화와 90년대 종초홍을 합쳐 놓은 듯한 히로인 송운화(Vivian Sung)는 금세 골목 어디에선가 뛰어 나올 듯하다. 유덕화를 좋아하는 산만하고 평범한 여고생 린전신은 자기에게 온 행운의 편지를 어찌지 못하고 하필 학교 최고의 일진 슈타이위에게 보낸다. 행운의 편지를 읽다가 차에 치는

불운을 당한 슈타이위는 폰수 맞지만 귀여운 린전신에게 흥미를 느낀다. 린전신은 학교의 엄친아 오유양을 좋아한다. 슈타이위 역시 남학생들의 선망인 타오민민에게 관심이 있다. 슈타이위는 린전신의 연애를 도와주고 린전신도 슈타이위의 구애를 도와준다. 서로 돕는 듯, 골탕을 먹이는 듯, 폰수대기 여학생과 학교 최고 일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불현듯 옆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주제는 로맨스 영화의 전통 공식이다. <내 남자 친구의 결혼식>, <김종욱 찾기> 등 많은 영화가 이 주제를 다루었다. <나의 소녀시대>는 그 공식을 충실히 따른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제는 추억이다. 유덕화는 영화의 마지막에 카메라로 출현하여 중요한 소품의 역할을 다한다. 사실 우리는 그의 80년대 영화 <천장지구>에 열광했다. 두 영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평범하고 소박한 여자아이를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모시키는 마법을 부린다. 남자아이들은 그 모습에 경도된다.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들이 사내아이들보다 빨리 크는 법이다.

첫사랑은 「소나기」에서처럼 잊힌 어린 시절 기억일 수도 있고, 「인연」의 아사코처럼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일 수도 있다. 블라디미르가 겪은 것처럼 훌연히 늙게 만든 인생 최대의 역경이었을 수도 있고 <건축학개론>의 승민과 서연처럼 아쉬운 사랑의 남은 불씨일 수도 있다. <플립>과 <나의 소녀시대>처럼 성장기의 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 당신에게 첫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잘 생각나지 않으면 어린 시절 만났던 소년이나 소녀를 떠올려 보라. 그가 또는 그녀가 오색찬란한 나의 첫사랑은 아니었는지? 첫사랑을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첫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챔터 저술을 한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본지에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유덕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 린전신은 우연히 불량소년 슈타이위를 알게 된다. 학교의 엄친아 오유양을 좋아하는 폰수대기 여학생 린전신과 남학생들의 선망인 타오민민에게 관심이 있는 일진 슈타이위의 찬란한 학창 시절이 시작된다.



젊은 층의 영화 팬들은 '대만 로맨스 영화는 늘 옳다'고 말한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타이페이 이야기>, <청설> 등 주옥같은 영화가 많다. 올드 팬들은 대만의 북고적 분위기에서 현재 우리나라보다 친근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동네 골목 어귀에서 봄직한 평범한 외모의 대만 여배우가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여학생과 더 닮았다.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토마토 요리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lycopene)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식이섬유와 펙틴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낮아 당뇨병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재료다. 기특한 토마토 요리를 만나자.

Tip 토마토 구입과 보관 팁

토마토를 구입할 때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 붉은 빛깔이 선명하고 균일한 것,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이 좋다. 또 토마토는 냉장보다 상온(15~25℃)에서, 햇빛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토마토는 흐르는 물에 씻어 과육 표면과 꼭지 부분의 이물질들을 세척한다. 토마토 껍질을 제거할 때는 열십자(十)로 칼집을 낸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토마토소스 양배추 말이

재료(1인 기준) 다진 돼지 살코기 30g, 양파 30g, 양배추 50g, 콘소메 5g, 토마토(100g 기준) 1개, 토마토케첩 15g, 파 3g, 소금 후추 약간, 물 1컵

만들기 ❶ 양파는 잘게 다지고, 다진 돼지 살코기와 고루 섞은 뒤 소금, 후추를 약간씩 뿌려 둔다. ❷ 토마토는 잘게 썰어 둔다. ❸ 양배추는 가운데 딱딱한 심 부분을 빼고, 끓는 물에서 연해질 때까지 익힌다. ❹ ❶을 하나로 반죽한 뒤 ❸으로 썬다. ❺ 전골냄비에 ❹와 함께 물 1컵, 콘소메, 잘게 썬 토마토, 토마토케첩을 넣고 약한 불로 30분간 익힌다. ❻ 그릇에 ❺를 담고, 송송 썬 파를 뿌린다.

Plus Tip 다진 돼지 살코기는 소고기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닭고기 토마토 찜

재료(1인 기준) 닭고기 90g, 당근 20g, 셀러리 20g, 양파 30g, 방울토마토 80g, 맛버섯 50g, 오코라 10g, 올리브오일 5g, 화이트 와인 5g, 소금 후추 약간

만들기 ❶ 닭고기는 한입 크기로 잘라서 소금, 후추를 약간씩 뿌려 둔다. ❷ 당근, 셀러리, 양파는 얇게 채를 썰어 둔다. ❸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달궈지면 닭고기를 넣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구운 후 ❷을 넣고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는다. ❹ ❸에 방울토마토와 하나씩 나눈 맛버섯, 동그렇게 썬 오코라를 넣고 푹 끓인다.

Plus Tip 맛버섯은 만가닥버섯이나 느타리버섯으로, 오코라는 풋고추로 대체해도 좋다.



〈계절밥상〉의 〈토마토소스 양배추 말이〉는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터키 이스파르타, 장미에 취해

선물 받은 장미 꽃다발에 코를 슬며시 문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향에 취한 적이 있는가?
터키 이스파르타에선 그런 수고를 기울이지 않아도, 얇은 들숨만으로 아찔한 장미향에 취할 수 있다.

여행작가 류진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더트래블러」,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 등에서 일하며 42개국 20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 유행의 흐름을 붙잡아 소개하는 일을 하다가 지치면 야생의 대자연으로 도망친다.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삶을 글로 쓴다.

장미의 도시 이스파르타에서 만난 바다처럼 넓은 호수, 에어리드르



2

2 —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장미밭이 펼쳐진 마을, 아르deş출르 쿠포.

3 — 장미 따기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들.

4 — 직접 따 장미로 오일, 장미수를 만들어 간직할 수 있다.

5 — 직접 만든 장미 부케를 들고 축제에 참가한 젊은이들.

6 — 장미 오일 추출 과정을 볼 수 있는 굴벌릭 팩토리.

꽃을 꺾는 모험

으스파르타 장미의 진가를 만나려면 교외로 나가야 한다. 아침 7시, 일찌감치 채비를 마치고 아르deş출르 쿠포ardıçlı köyü로 향했다. 여의도 면적 33배에 달하는 장미 밭이 펼쳐진 마을이다. 이른 시간부터 서두르는 이유는 '향' 때문이다. 새벽이슬을 머금은 장미가 풍만하고 육감적인 향을 내뿜기 때문이다. 장미를 따는 일꾼들이 새벽부터 서두르는 이유다. 질척이는 진흙 밭을 건너 드디어 '로자 다마세나'가 용단처럼 깔린 들판에 닿았다. 농부의 앞섶에 매달린 포대 자루엔 벌써 장미 수백 송이가 한가득 차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꽃의 머리채를 툭, 툭 부러뜨리는 이들 앞에서 낭만에 취한 얼굴로 카메라를 들이밀긴 조금 멧쩍었다. 여행자가 어떤 시골을 찾는 이유는 장미 따기 체험과 갓 짠 장미 오일, 장미수를 하나씩 챙겨 돌아가는 경험 때문이다. 20분 안팎이면 족히 채우는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농부들의 꽃 따는 손을 결눈질로 살피면서 장미를 채취했다. 로자 다마세나의 향은 확실히 서울의 샌님 같은 관상 장미와 달랐다. 해발 고도 800미터, 안개 자욱한 협곡에서 맡은 장미의 체취는 그 어떤 조향사도, 수백만 원짜리 오드 뚜왈렛도 흉내 낼 수 없는 향기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에서 초자연적 후각을 가진 주인공 장 바스티스 그르누이가 이곳에 왔다면 소녀의 체취에 집착하는 '어느 살인자'가 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3

아무도 모르는 장미의 도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지며 일어난 변화. 꽃이 중요해졌다. 꽃 몇 송이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축 치진 기분을 밝히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한 후엔 더더욱. 몇날며칠 꽃에 취하고 싶을 때, 꽃놀이 하러 떠날 수 있는 시절이 온다면 어디로 갈까? 교토로 벚꽃 소풍? 큐켄호프 튜립 축제? 떠오르는 버킷 리스트에서 가장 마음을 끄는 곳이 있다. 분홍 장미가 파도처럼 넘실대던 곳, 터키 으스파르타Isparta다.

역병이 지구를 뒤덮기 1년 전, 나는 장미 꽃잎 수백만 장이 마른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으스파르타 광장에 서 있었다. 소방대원들이 실 새 없이 꽃잎을 쏘아 올리던 낭만적인 장면, 그 아래에서 전통 의복을 입고 피리 불며 행진하던 남자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새의 청춘들, 말끔하게 꾸민 아이들이 장미꽃을 들고 장미 화관을 쓰고 장미꽃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메고 바구니에서 장미 꽃잎을 한 움큼 쥐어 온 도시 곳곳에 뿌려 대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선하다.

우리에게 밭을조차 낫선 으스파르타는 터키에선 꽤 이름 높은 관광지다. 유럽에선 불가리아와 함께 '시티 오브 로즈'라는 명성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전 세계에서 '상품'으로 소비되는 장미의 65퍼센트를 생산, 공급한다. 내가 도착한 날 마주한 꽃 잔치는 1999년부터 시작된 '으스파르타 장미 축제'. 터키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페스티벌 중 하나다.

으스파르타가 장미의, 장미에 의한, 장미를 위한 도시가 된 건 장미가 자라기 좋은 기후와 토양의 공이 아니다. 이스마일 에펜디라는 한 사람이 오늘날의 으스파르타를 만들었다. 1888년, 불가리아에서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 로즈 다마세나 씨앗을 지팡이 속에 숨겨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 불가리아에선 '세계 유일, 최고의 장미국'이라는 영예를 빼앗아간 씨도독이지만 터키에선 위인으로 추앙받는다. 으스파르타는 시청 앞 광장에 동상을 세워 그의 공로를 역사 속에 길이 박제했다.



4



5



6



7



8



9



10

장미를 다 탄 후엔 마을 부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한다. 터키식 피자, '피데'와 홍차로 꾸러진 새참이 노동 시늉으로 '수고'한 체험객들을 기다린다. 커다란 화덕에서 갓 구워 나오는 피데는 밀가루 반죽에 감자, 채소, 양귀비 씨앗 따위를 갈아 넣은 후 전병처럼 얇게 펴 익힌 음식이다. 한쪽에선 갓 탄 장미를 바로 증류해 장미 오일과 장미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경할 수 있다. 농장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장미수를 받아 들면 터키식 장미농장 체험이 끝난다.

장미가 진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으스파르타의 장미농가가 만든 협동조합 '굴빌릭 팩토리'에서 볼 수 있다. 장미수확철엔 하루 320톤의 장미 잎이 이곳으로 보내진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장미 100만 송이(3.5톤~4톤)로 장미 오일 1킬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에 공급하는 으스파르타 장미 오일 1킬로그램의 가격은 무려 1만 유로에 달한다. 최상급 장미 오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고 싶다면 굴빌릭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 '로센스 Rosense'가 제격이다. 샴*, 디* 같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스킨케어, 향수의 약 3분의 1 가격으로 장미 호사를 누릴 수 있다.

호수에서 '멍'상

터키의 이슬람 신자들은 장미향을 모하메드의 겨드랑이 냄새라고 말한다(가이드에 따르면 신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오전 내내 '모하메드의 겨드랑이 향'에 취한 으스파르타 여행자들의 오후 행선지는 '호수'다. 시내에서 차를 타고 반시간 정도 달리면 '바다 아닌가?' 착각이 절로 드는 담수호 '레이크 에이르디르L. Egirdir'에 닿는다.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이 민물호수의 면적은 무려 482제곱킬로미터. 싱가포르 면적보다 조금 작은 정도, 라고 설명하면 규모가 좀 더 와 닿을까?

호수를 조망하려면 윗동네 악피나르Akpınar에 올라야 한다. 에이르디르 레이크가 해발고도 900미터 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고지대지만 오래된 집과 관광객을 상대하는 식당, 숙소, 카페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개안'되는 기분이 드는 맑고 청아한 호수를 땀눈에 고스란히 담고 싶었지만 바람의 등쌀을 못 이기고 전망 좋은 카페로 쫓기듯 들어가 앉았다. 진한 터키식 커피와 홍차, 으스파르타의 장미로 만든 터키식 달라이트, '로즈 로콤'을 앞에 두고 통유리에 가득 담긴 호수를 하염없이 응시했다. 긴 여정으로 뭉친 어깨와 지친 몸이 따뜻한 차 한 잔과 달콤한 디저트에 사르르 풀리는 듯하다. 한때 유럽을 호령한 오스만 귀족이 누린 '터키식 휴양'이 이런 호사일까? 서울에 두고 오고 싶었지만 거머리처럼 따라 붙은 피로와 스트레스, 들쭉날쭉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기분이었다. 모하메드를 믿은 적은 없지만, 그의 체취-장미향-에 취해 매일 신 앞에 엎드려 자신과 가족,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터키인들의 평안을 어렵듯이 맞본 것도 같다.



7 - 장미를 다 탄 후엔 터키식 피자, 피데와 홍차 한 잔으로 출출함을 달랜다.

8 - 시내 어느 곳에서나 만개한 장미를 만날 수 있다.

9 - 터키시료즈의 자랑, 굴빌릭팩토리.

10 - 달궈진 모래 위에서 우러내는 진한 터키커피 한 잔도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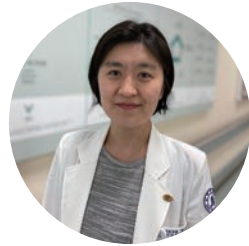
11 - 악피나르 정상에서 바라본 레이크 에이르디르. 마음이 뻥 풀리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11

친절한 인하사를 소개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보호자 분들에게 칭찬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칭찬 직원'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칭찬 직원으로 선정된 <친절한 인하사>을 소개합니다(소속은 수상 시점 기준).

10월



백지현(감염내과)

칭찬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환자들을 맞아주시고 질문에 늘 친절하게 답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하지 못한 날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늘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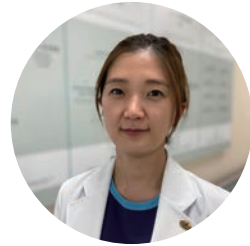


최지원(재활의학과)

칭찬합니다! 늘 한결같이 사랑과 진심으로 환자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활의학과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고 몸은 물론 마음까지 힘든 분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께 앞으로 더욱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서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권선영(심장혈관센터)

칭찬합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받은 칭찬과 격려만큼 더욱 환자 분들에게 공감하고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슬(암통합지원센터)

칭찬합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하게 환자를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박다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중앙전문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입원간호 1팀(3병동)

칭찬합니다! 방호복 입고 들어오는 간호선생님들을 보면, '이분들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호복 입고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전해진 칭찬 한마디가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함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귀하게

인하대병원은 신처럼 우직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NHA, PEOPLE

교육수련실 사람들

인하대병원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김민지 사서

이동주 실장

김필립 과장

김소현 교수

남궁석준 팀장

성실한 오늘은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수련을 제공하는 인하대병원 교육수련실의 역할도 이와 같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인턴, 레지던트 시기를 지나며 고군분투하는 전공의들에게 꼭 맞는 도움을 건네는 교육수련실 사람들을 만났다.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인하대병원 교육수련실에서는 인턴·레지던트에게 체계적인 수련을 제공하고 있다. 1996년 8월 교육연구부라는 이름으로 개설됐고, 2013년 9월 지금의 이름, 교육수련실로 변경됐다.

교육수련실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선발부터 수료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또한 부가적으로 외국인 의사의 해외 연수 업무도 담당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이슈로 중단된 상태다. 의학도서관 관리도 교육수련실 업무다.

정형외과 교수이자 교육수련실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이동주 실장은 전국 최장수 교육수련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교육수련실 수장으로서는 교육수련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교육수련실 부실장은 내분비내과 김소현 교수가 맡고 있다. 이외 교육수련실은 남궁석준 팀장, 김필립 과장, 김민지 의학도서관 사서로 구성된다.

이동주 실장은 '전공의들이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장'이라는 말로 인하대병원 교육수련실을 소개한다.

“인하대병원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선발 과정은 공정하며, 최고의 수련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교육수련실은 2019년 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전공의 만족도 1위에 선정됐으며, 2020년에는 의료질평가 교육수련영역 1등급을 획득했다. 이동주 실장은 인하대병원 교육수련실의 장점을 “체계적이지만 유연한 수련”이라고 꼽았다.

교육수련실의 미션은 '성공하는 전공의를 만들자'다. 이동주 실장의 설명이다. “많은 전공의들이 '성공하는 전공의'의 의미를 묻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받으면 끝이지 않느냐고요.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 전문의가 되고, 수련을 잘 받아 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수련 목표가 전문의 취득이 최종이 아닌,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디딤돌이 되는 수련을 제공하는 것이 인하대병원 교육수련실의 미션입니다.”





**교육수련실 김필립 과장
담임 선생님 같다고 해요!**

2008년 인하대병원에 입사해 홍보팀에서 근무한 뒤 2012년부터 교육수련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2년 공백을 제외하면 교육수련실 근무 경력은 만 7년입니다. 처음 교육수련실에서 근무할 때는 외국인 의사 연수업무가 중심이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외기관과 협력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의사들을 우리 병원에서 교육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해당 국가에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과거 해외연수 업무 비중이 80%고 전공의 관련 업무가 20%였다면 전공의특별법이 생긴 뒤 전공의 업무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외국인 의사 연수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전공의 수련업무에 100%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채용부터 수료까지 전반 사항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관련 평가 등 수련환경평가나 의료질평가, 당직표 작성, 선생님들 당직실 관리를 비롯해 24시간 체제로 민원 상담도 하면서 열일하고 있답니다(웃음).

어떤 레지던트 선생님이 저더러 담임 선생님 같대요. 인턴, 레지던트 포함해 모두 180명 정도 되는데, 저 역시 가끔 제가 담임 선생님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턴부터 시작한 선생님이 레지던트 수료하고 전문의 취득한 다음에 퇴직한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러 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은 대개 주 8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나마 전공의특별법이 생기면서 줄어든 거죠.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인하대병원도 전공의 업무 프로세스를 많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꿀지 레지던트·인턴 선생님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면서 인성을 높인 기억이 스칩니다. 하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의 일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선생님들을 많이 아끼고 응원합니다. 여전히 주 80시간을 일하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가끔 잠에 취해, 또 너무 피곤해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관용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학도서관 담당 김민지 사서
긍정과 희망을 나눠요!**

2014년에 입사해 분리돼 있던 의학도서관 공간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하대병원 의학도서관은 의학 분야 관련 자료만 있으며 교육수련실의 하위 부서로 교육수련실장님의 주도 아래 운영됩니다. 2017년부터 교육수련실이 있던 중앙 행정사무실이 이전하여 도서관과 교육수련실이 같은 공간에 배치됐고, 현재까지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인증하는 '의학사서' 자격증을 2019년에 취득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책의 대출·반납, 이용자 관리, 도서관 전반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년 배정되는 도서관 예산으로 전자자료 구독 계약 및 도서를 구입하며 교수님 또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논문 형식 검수 작업도 합니다. 이외에 전자자료 이용 또는 논문작성에 관련된 교육자료를 만들거나 정기 대면 강좌를 진행합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적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코로나블루와 연관된 책이나 연구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권 읽어봤지만 불안함이나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긍정과 희망을 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도서관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휴관하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규모가 작긴 하지만 우리 기관도 대면 서비스로 제공하던 업무를 비대면으로 대체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현재 상황이나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고, 여전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빌리러 오는 이용자들을 만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부서의 여러 사람을 만날 때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감사 인사를 해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또 요청한 자료를 빠르게 제공해드리거나 이용자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할 때 감사 인사를 받는데, 이럴 때 무척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서는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일종의 서비스직이라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는 게 성격과 잘 맞아요. 앞으로도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발급 이용 가이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가 필요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하대병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이하 검사센터) 제2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 출입증발급소 앞 외부 공간에 위치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이용 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다. 예약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구분	검사 시간	결과 확인 가능 시간
PCR 검사	09:00 ~ 10:00	당일 17:00 ~ 18:00
	10:00 ~ 18:00	익일 09:00 ~ 18:00
항원 항체 검사	09:00 ~ 18:00	검사 후 1시간 후 ~ 18:00

※ 여권 미지참시 접수 불가 / 검사 접수 마감시간은 1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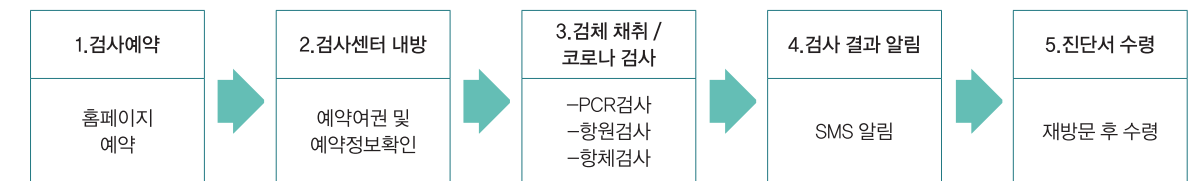
검사 종류와 비용

검사센터에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항체 검사 중 해외출국 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는 결과 확인까지 최소 7시간이 소요되고, 항체 검사(정맥 채혈)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 출국을 앞두고 센터를 이용할 때는 검사별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비용은 의료수가를 기반으로 PCR 검사 약 8만원, 항체 검사 약 5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변동 시 다시 안내한다. 진찰료 외에 음성 결과확인서 발급은 별도로 3만원이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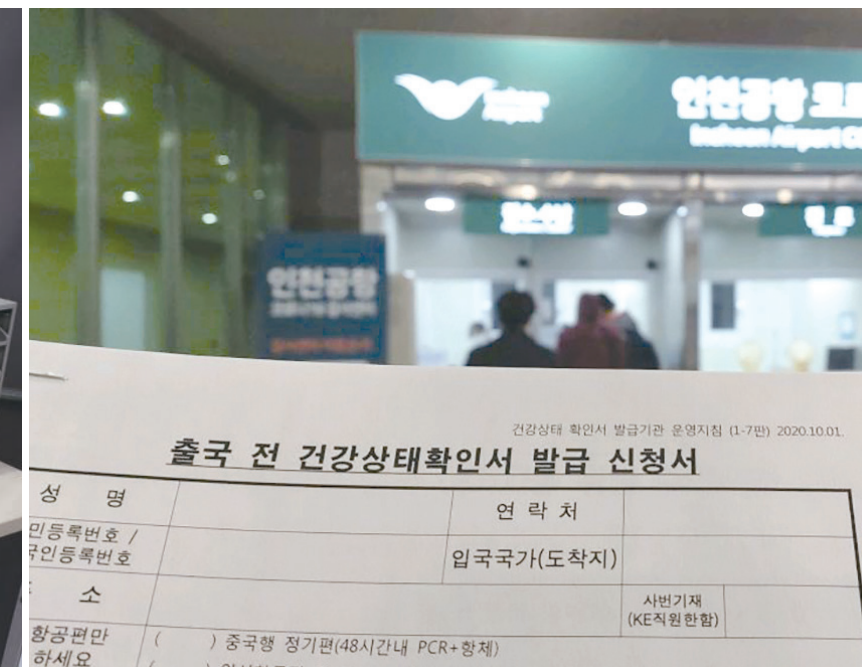
인하대병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센터 이용실적에 따라 앞으로 운영 장소와 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음성 결과확인서 발급 키오스크를 마련해 여객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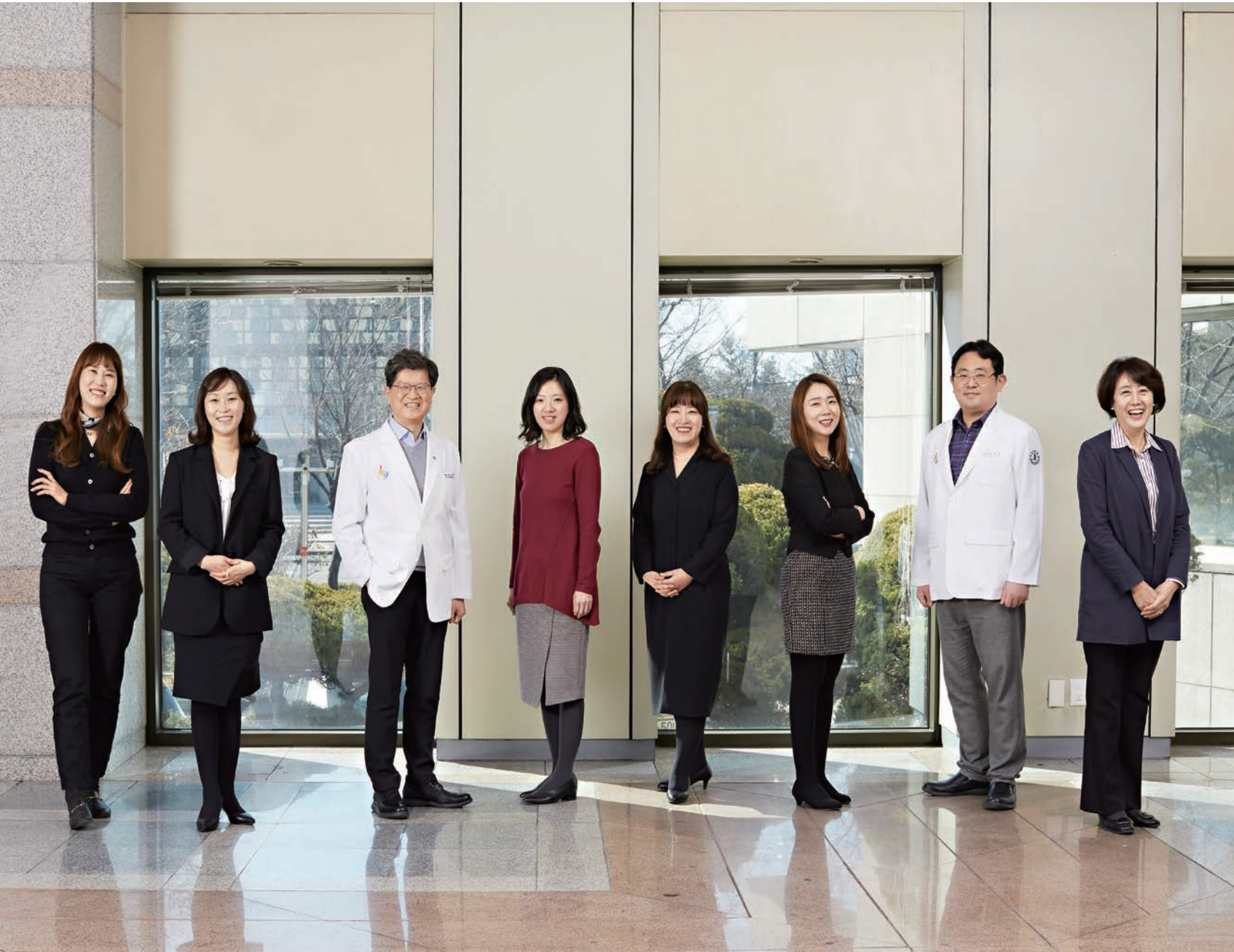
■ 이용방법



PCR 검사센터
**안전한 여행,
인하대병원 코로나검사센터와 함께!**

해외 출국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0월,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필수 제출 국가로 출국하는 해외출국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말 운영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2020년 의료질평가 전 영역 1등급 획득하다

하이벨류케어 선포 이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하대병원의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인하대병원은 2020년 의료질평가 전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의료평가실을 만나 그간의 노력을 들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안전을 기본으로 올바른 가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환자 안전,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영역에서 전국 상위 2% 이내에 해당하는 '1-가'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전국 병원 7곳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인 인하대병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은 인하대병원의 의료 질 수준이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이라 평가받기까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의료질평가란 무엇이며, 이번 평가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의료질평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질 평가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의료기관별로 평가하는 제도다. 환자 안전,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6개 영역, 50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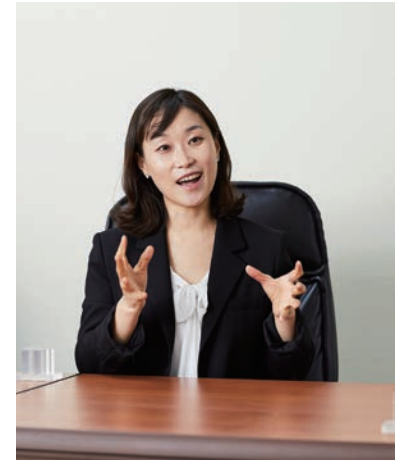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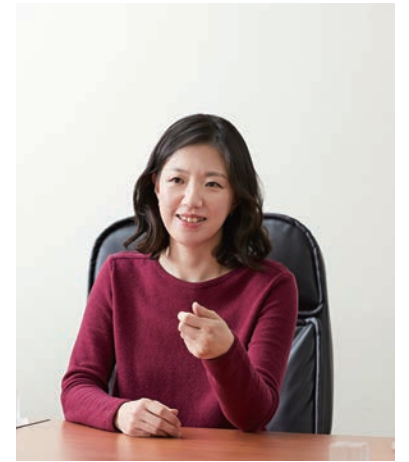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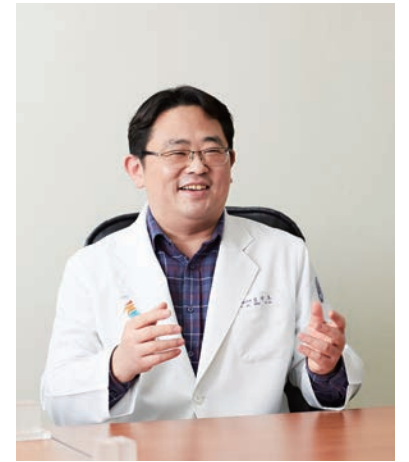
인하대병원은 이러한 평가제도 아래 환자 안전,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병원들의 관심이 적었던 2015년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질 평가를 예측하고 지표를 꾸준히 관리해온 과정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

인하대병원이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항목은 무엇인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병원의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노력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원의학과 진료과목을 개설해 중증 입원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8년 경인 지역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심층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희귀질환 경기 서북부 권역 거점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역할인 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음압 병상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개선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확진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발적인 의료 질 지표의 대외공개는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

인하대병원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료 질 지표를 2년 연속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 질 지표 공개에는 '진료 과정과 진료 결과'를 측정한 지표가 포함돼 있다. 환자가 실제로 궁금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는 진료 결과를 나타내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같은 결과에 관한 것이다. 결과 지표의 관리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지표를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뇌졸중 등 신속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위해 표준 진료 지침에 따른 진료 과정을 구축하고, 지침대로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모든 과정이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다. 즉, 의료 질 지표 공개는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장치 중 하나다. 앞으로도 의료 질 지표 공개를 통해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더 성장하는 병원의 기반으로 삼고자 의료 질 지표의 자발적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① 혈액순환개선제

혈액의 순환은 건강과 직결된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면 동맥경화나 각종 심혈관 질환 등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혈액순환개선제는 혈관 질환의 치료제는 아니다. 증상 등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의심되면 먼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원인을 확인한 뒤 투여해야 한다.

혈액순환 장애란 어떤 질병인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질환을 말합니다. 동맥순환 장애가 있으면 관상동맥이나 뇌동맥이 좁아져 협심증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이명, 두통,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맥순환 장애는 혈액이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정맥혈관 벽이 늘어나거나 혈류 흐름을 조절하는 정맥 내의 판막이 약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주로 다리가 붓고, 걸을 때 통증을 느끼며, 하지정맥류나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개선제는 어떤 성분인가?

동맥순환개선제는 작용 부위에 따라 뇌순환 개선, 눈의 망막순환 개선, 말초순환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이부딜라스트, 니세르골린, 칼리크레인, 펜톡시필린 등 성분이 처방약으로 사용되며, 비타민 E, 은행엽엑스 성분이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됩니다. 정맥순환개선제는 작용부위에 따라 정맥림프기능부전의 증상 개선, 치질 개선, 망막순환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나프타존, 도베실레이트 및 포도씨건조엑스 성분이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포도엽엑스,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 셀렐라아시아티카 추출물, 디오스민 성분이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됩니다.

혈액순환개선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혈액순환개선제는 혈관질환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혈액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원인을 확인한 뒤 투여해야 합니다. 뇌순환 장애의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혈액순환개선제는 뇌동맥경화 등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와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는 이펜프로딜, 은행엽엑스 등은 급성 출혈 환자에게 투여 시 출혈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 투여하지 않습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 약국

용현동	약손약국	032-884-1886
주안동	라성약국	032-831-6065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032-875-0509
주안동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용현5동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송현동	백제약국	032-764-5747
송림동	종로약국	032-766-9301
	보명약국	032-762-3347
구래동	김포도담약국	031-987-5936
선학동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연수동	연수태평양약국	032-818-7010
옥련동	온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동의당약국	032-834-8274
송도동	신도시약국	032-851-7516
용중동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작전동	우리팜약국	032-551-7535
작전1동	유원약국	032-551-5650
항동7가	유한온누리약국	032-883-2600
운서동	영종태평양약국	032-746-1313
구월1동	이레약국	032-462-1851
구월동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구월4동	연세프라자약국	032-462-0392
부평6동	행복한온누리약국	032-503-9339
	유피마부평성모	032-505-2035
가좌동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한 협력 약국은 032-890-3323, 33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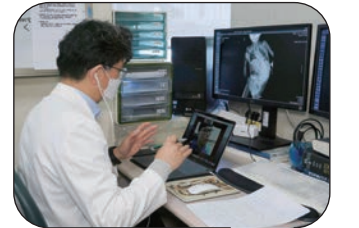
관련자: 안승익 진료부원장
언론사: 메디포뉴스
주 제: 46개 협력병원과 감염병 관리 노하우 공유

2020. 11. 27



주치의: 박상돈 심장내과 교수
언론사: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주 제: 가슴 열지 않는 심장 수술, 인하대병원 의술에 온정 달아 성공

2020. 12. 4



관련자: 김명옥 사회공헌지원단장
언론사: 의학신문
주 제: 중도중복장애학생 비대면 의료컨설팅 마무리

2020. 12. 7



인터뷰: 김동현 소아청소년과 교수
언론사: 데일리메디
주 제: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하는 의사 고충

2020.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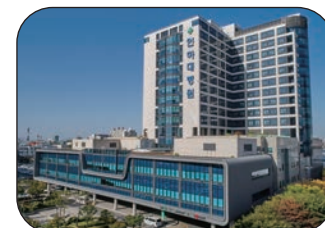
관련자: 국제협력팀, 국제진료센터
언론사: 중앙일보
주 제: 해외 거주 한국인, 한국 의사에게 온라인 진료받는다

2020. 12. 9



주치의: 기세휘 성형외과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산업재해로 물건 못 잡던 손, 재건수술로 작은 것도 척척(수지접합)

2020. 12. 10



관련자: 인하대병원
언론사: 기호일보
주 제: 2020 의료질평가 전국 최상위 등급(1-기) 획득

2020. 12. 22



관련자: 인하대병원
언론사: 국민일보
주 제: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전국 1위

2020. 12. 31



관련자: 인하대병원
언론사: 헬스조선
주 제: 4기 상급종합병원지정 (권역 내 최고점)

2021. 1. 5



주치의: 최윤석 외과 교수
언론사: 경기일보
주 제: 인천 최초 로봇 탈장수술 성공

1 지역 유일의 공용윤리위원회, 온라인 간담회 개최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9개 위탁협약기관 의료진과 담당자 등 30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천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했고 인하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권역위원회 지정 이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설명회와 온·오프라인 교육을 꾸준히 실시했고,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공용윤리위원장인 이문희 교수는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 환자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기관 중 '전국 1등'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 항목 만점으로 '전국 1등 응급의료기관' 타이틀을 얻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전국 405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세부 평가항목은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 적시성, 기능성으로 구성됐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모든 영역의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전국 1위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받았다.

3 2020 의료질평가 전국 최상위 등급 획득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0 의료질평가' 전체 영역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의료질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의료기관별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

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6개 영역, 50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인하대병원은 특히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에서 전국 상위 2% 이내에 해당하는 '1-가'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4 서해5도 공중보건의 비대면 간담회 개최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도서지역 공중보건의들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우성일 심혈관센터장, 현동근 뇌혈관센터장, 백진휘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센터장, 이동열 진료협력팀장과 덕적도, 백령도, 연평도, 영흥도, 자월도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6명의 공중보건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현황을 공유하며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현재 인하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바일 네트워크 '인하콜'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는 등 도서지역에서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 발생 시 상호간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5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는 전국 11개 진료권역 45개 기관을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발표했다. 인하대병원은 4기수 연속 및 이번 평가에서 경기서북부권역 최고점을 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다. 또한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가능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포함시켰다.



6 인천 최초 로봇 탈장수술 성공

인하대병원 외과 최윤석 교수가 인천 지역 최초로 2020년 연말 총 4차례의 로봇 탈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로봇을 이용한 탈장수술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보편화되었으나, 국내에서는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0개 이하 병원에서만 총 50례 정도만 진행되었다. 최윤석 교수는 "탈장이 심하면 수술 난이도가 높고, 추후 재발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함께 올라간다"며 "점차 발전하는 수술법 중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기존 탈장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관·신경·고환 혈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하고, 수술 뒤 통증 최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7 스마트가든 조성

인하대병원은 인천 중구 지원을 받아 원내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가든은 의료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는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을 위한 특별한 휴식공간으로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 소재와 자동화 관리 기술을 적용해 관수, 식물생장조절 등을 제어한다.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관상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신 벽면형 실내 정원이다. 병원 직원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8 비대면 소통채널로 보호자 만족도 'UP'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보호자 비대면 의사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시범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확대운영을 거쳐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이후 정식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감염관리 차원에서 면회 제한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보호자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보호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추가한 뒤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채널 추가 뒤 채팅창에 환자 이름과 함께 보호자임을 알리면 병동 의료진과 대화 등 소통이 가능하다.

9 인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오픈

인하대병원이 운영을 맡는 '인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온라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센터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현황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 10개 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소,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 원스톱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은 2020년 7월 인천 유일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10 인하대병원서 코로나 음성 결과지 받으면 하와이에서 자가격리 면제

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발급받는 하와이 여행객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와이 주정부는 인하대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고,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와이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소지한 여행객들에게 열흘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와이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내 지정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결과를 수령하고, 이를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한다.

진료 안내 (2021년 3월 1일 기준)

• 대표전화 1600 - 8114 (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 890 - 2000 • 가정간호사업실 (032) 890 - 3590
 • 종합검진센터 (032) 890 - 3331 • 암통합지원센터 (032) 890 - 3600 • 진료협력센터 (032) 890 - 3302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김아름	일본내과	
	나정호	뇌신경질환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신경과 NRNN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NN	김 룠	파킨슨병, 이상행동, 신경계회귀질환, 어지럼증, 두통, 뇌전증(간질)질환, 수면질환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B)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신경외과 (NSCB)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김 룠	파킨슨병, 이상행동, 신경계회귀질환, 어지럼증, 두통, 뇌전증(간질)질환, 수면질환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홍성민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외과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성하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가정의학과	허윤석	비만·당뇨·위수술	
	최윤석	비만·당뇨·위수술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후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방사선종양학과 ☎3070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관절염, 척추염, 통풍, 자기면역질환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비뇨의학과 ☎2360	김한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소아	
산부인과 ☎2270, 2117	류지간	생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비뇨기 종양, 결석, 전립 질환	
성형외과 ☎3870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이방현	종양학, 복강경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재활의학과 ☎3870	황 건	외골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목재건술, 미용수술	
	최승석	신경재건, 손목터널증후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체형교정, 보톡스 및 필러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기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이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김수진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질환, 가와사키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소화기내과 ☎2224	박지선	소아청소년 내분비학, 소아 성조숙 및 저신장	
	이기희	신생아, 미숙아, 발달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 대장질환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도행	담도-췌장질환, 위 대장내시경	
	관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신경과 ☎3860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 식도염, 비만	
	신중범	위· 대장질환, 소화관 암, 소장질환, 염증성장질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 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 룠	파킨슨병, 손떨림, 소뇌실조, 근긴장이상증, 헌팅턴병, 기타 이상 운동 질환,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 뇌전증(간질) 질환, 수면질환	
신경외과 ☎2370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협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신장내과 ☎2229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이식	
신장이식클리닉 (KTC)	NHKT	황선덕	신장이식
		김지희	신장이식, 혈관이식
심뇌재활센터(RMCR) ☎2480	CV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신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심혈관센터 (CVC) ☎2200	PD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신성희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안과 ☎2400	신은정	백운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안과 ☎2400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강성모	성형안과, 사시
	김나래	녹내장, 백내장
	정지원	백내장, 각막, 외안부, 백내장 수술
	정소연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안과레이저 알레르기내과 ☎2217	이동현	망막, 유리체
	김철우	레이저클리닉
영상의학과 ☎2740-3	조순구	중재적 영상의학
	배민선	중재적 영상의학
	이정민	중재적 영상의학
외과 ☎2250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허윤석	소화기외과, 위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최윤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신우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정성택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임성목	유방외과
	최윤석	위장관 외과
	박신영	유방외과, 유방암, 유방질환
강지희	혈관외과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BTC) ☎2560-1	정태영	혈관이식외과
	최성운	유방외과,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내분비외과
	윤혜정	유방,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진욱	유방, 내분비외과, 구강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임성목	유방외과
	박신영	유방, 내분비외과
	최성운	유방외과,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내분비외과
	윤혜정	유방, 갑상선내분비외과
	김규성	유방외과, 유방암, 유방질환
	김영효	알레르기비염, 코골이및수면무호흡, 비중격질환, 축농증,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2420-1	최정석	타액선 내시경술,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성대) 질환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 보청기
임상약리학과 ☎1167	김자연	피타 편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이비인후과,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재활의학과 ☎2480-1	조상현	임상약리/약동분석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김명욱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이정심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 연어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정신장애
정형외과 ☎2380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 자살예방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병
	맹세리	성인, 소아 정신건강
	손지성	소아청소년정신과
	문경호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정형외과 ☎2380	김명구	슬관절(인공관절, 퇴행성관절염, 스포츠손상)
	강준순	슬관절(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관절염, 종양, 골다공증)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이동주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정형외과 ☎2380	전윤상	어깨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치환술,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어깨 탈구 및 스포츠 손상), 주관절, 슬관절	
	류동진	슬관절(무릎), 무릎 스포츠 손상(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교정 절골술, 하지 외상	
	권원환	슬관절, 어깨관절	
직업환경의학과 ☎2861	전윤문	슬관절, 어깨관절	
	임중환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업제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보건의관리	
	김철환	뇌, 심혈관질환 평가 및 관리,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이상윤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평가	
척추센터 (SCC) ☎2619	정형외과(OSSC)	조규정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신경외과 (NSSC)	윤승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측만증, 척추종양
치과 ☎2470	재활의학과(RMSC)	김명욱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호흡기내과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조현영	구강외과
		최진호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클리닉
		최지현	교정과
통증센터 ☎3921	김소현	통합치과학과	
	김병건	통증치료	
폐암센터 ☎3890	김나은	통증치료	
	호흡기내과	류정선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흉부외과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윤용한	폐종양	
피부과 ☎2230	김영삼	폐종양	
	최광성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신정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알러지, 백 반증, 기타자기면역 피부질환, 여드름, 흉주	
	변지원	여드름, 피부노화, 피부양성종양, 피부미용외과, 피부과전반적인질환	
	신현태	유선성피부질환, 소아피부질환, 항암제 피부부작용	
핵의학과 ☎3160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이민경	동위원소치료	
혈관외과 ☎2166	강지희	혈관이식외과	
	정태영	혈관이식외과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혈액종양내과 ☎2199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완화의료	
	임주한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하해림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박지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호흡기내과 ☎2216, 2217	김진철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곽승민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류정선	연구년 2021. 3. 1~21. 8. 31	
	남해성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흉부외과 ☎2280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박미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 의학	
	임준혁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중환자의학	
	백완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김정택	심장혈관질환, 일반흉부질환	
희귀유전 질환센터	윤용한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김영삼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강철웅	심장, 혈관질환	
	권영세	소아신경, 뇌전증	
	이지은	소아내분비,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김수진	유근다당증, 누난증후군, 프라다-윌리증후군, 엔젤만증후군, 터너증후군, 유전성대사질환	
	신경과	최석진	말초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재활의학과	정한영	발달지연, 근육병, 뇌성마비
문연숙	세포유전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신용운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위암, 염증성 장질환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외과	최윤석	위장관 외과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혈액종양내과	하혜림	위암, 식도암, 기타 고형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위암, 식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대장암	신용운	대장암, 위암, 역류성 식도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대장암, 위암, 위, 대장 질환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외과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대장항문질환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간암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외과	안승익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이건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이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뇨기암, 뇌척추종양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췌담도암	이돈행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이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하혜림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병리과	김우철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폐암	이홍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연구년 2021.3.1~2021.8.31	
	흉부외과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형 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임준혁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암 조기검진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종격동질환, 흉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진철	폐암, 흉선암	
병리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루시아	폐병리	
혈액암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김진철	혈액암, 혈액질환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추종양	
병리과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갑상선암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갑상선종양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조용인	갑상선, 내분비질환, 부신	
외과	이진욱	갑상선, 내분비 질환, 로봇수술, 구강 내시경수술	
	최정석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이비인후과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하혜림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혈액종양내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생리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외과	임성목	유방외과	
	박신영	유방암, 유방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피부암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혈액종양내과	박지선	완화의료, 고형암, 혈액암	
	김현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유방암, 부인암, 두경부암	
신부인과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병현	부인종양학(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외 신부인과 종양)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병리과	최석진	산부인과병리	
비뇨기암	이택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종양, 소아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신이식,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하혜림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두경부암	최정석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성형외과	기세휘	조직재건, 유방재건, 피부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위암, 식도암	
	하혜림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위암, 식도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하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병리과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중앙스트레스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임파부종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영욱	암재활 - 림프부종
피부암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유방재건, 유방성형	
	하혜림	소아 피부질환(혈관종 포함), 항암제 피부 부작용, 희귀 유전질환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박현선	사이베나미프 - 뇌종양, 뇌전야, 두경부암, 두개 기저부 종양	
혈액종양내과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방사선종양학과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하혜림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정형외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야, 척수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강준수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혈액종양내과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 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족부 족관절 질환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내 손안의 스마트병원

인하대병원 모바일앱

My 인하

OPEN

오전 9:08 87%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

입원 건강검진 안내

의료진찾기 간편예약

진료예약조회 진료시간표

대리결제 건강수첩

전자처방전달

사용 문의 1661-7551
 나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 3가 7-206)
 ☎-890-2114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문상담원이 빠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거 010-0000-0000

다른 방식의 예약을 원하시나요?

인하대병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의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과 검색
 진료과명 또는 질환명 검색

나의차트를 통해 예약현황, 진료과별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진료예약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예약 가능

진료비결제
대기없이 간편하게 병원비 결제

진료대기순서
대기 순서 알림으로 기다림 없이 진료

진료예약조회
예약한 진료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내일정
병원스케줄을 한눈에 확인 가능

실손보험청구
복잡한 신청서류 없이 실손보험 즉시 청구

전자처방전달
종이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전자처방 전달

건강수첩
기본적인 건강관리 (혈압, 혈당, 체질량)

※개선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